

농촌선교신학으로써의 생명신학

이 정 배(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들어가는 글

이미 고인이 된 여성 생명신학자 선순화는 70년대 말까지 대학 신입생들의 필독 도서로 카아(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단연코 으뜸이었으나, 80년대 중반부터는 J. 리프킨의 『엔트로피』, 『생명권 정치학』과 같은, '생명'이 핵심 주제가 되는 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본다. 오로지 경제적 관심 하에 사적인 안정을 구축해온 근대 이래의 인간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려 버렸으며 하나밖에 없는 지구생태계의 허물어짐을 목도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연을 물적 토대로 이해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기표현 공간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던 기독교를 비롯한 근대서구사상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시키는 문명이야말로 고도의 문화를 지닌 것으로 보았던 알버트 슈바이처의 통찰은 대단히 의미 깊다.

인간이 자연을 희생의 댓가로 삼고, 제1세계가 제3세계를 볼모로 잡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의 희생을 가중시키며, 도시문화

가 농촌의 희생 위에 존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반(反)생명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생명신학은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약자의 억울함을 경감시키려는 문화적 전략으로써의 선교를 말한다. 선교란 모든 존재에게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주려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서 삶의 통전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도시문화를 위해 희생양이 되고 있는 오늘의 농촌은 선교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겠다. 독거 노인들, 늙고 병든 할머니들만 남아있는 곳, 부족한 인력을 농약의 힘으로 메꾸며 자연을 더욱 황폐케 하는 농촌, 생명가치를 돈으로 인식하게 된 농민들, 한국 종자시장의 70~80%를 외국자본에 빼앗긴 현실, 그래서 매년 특정 회사의 씨앗을 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 등은 농촌선교의 필연성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필자는 농촌선교의 주체를 여전히 농민이라고 믿는다. 농촌에는 아직도 소중한 생명가치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가슴속에, 그들의 정서 속에, 그들의 일상적 삶의 흔적 속에 묻어있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생명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생명신학의 할 일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다음의 순서로 글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한다. 첫째, 한국 농촌의 생명파괴의 실상 둘째, 생명신학의 문화전략으로써의 선교-환경선교와 농촌선교의 본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좁은 길, 대안적 공동체를 위한 농촌선교이다.

1. 한국농촌 그 생명파괴의 실상

얼마 전 필자는 강원도 오지(奧地)를 자동차로 다녀온 적이 있다. 저녁 황혼이 밀려오는 때에 머리에 광주리를 얹은 한 늙은 할머니가 포장도 되지 않은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자동차를 본 순간 할머니는 자신 없는 듯한 손 사래질로 우리

를 멈추게 하였다. 읍내로 나가는 차라면 태워달라고 하는 소박한 부탁을 하였다. 들녘에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 차를 놓쳐 버리고 20리 길을 어둑해진 길 따라 걸어서 집에 갈 작정이었다고 한다. 자식들은 다 커서 도시에 나가 살고, 몇 마지기 남은 논밭을 할머니 홀로 농사짓고 있다고 하였다. 외로움과 피곤이 질게 물든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저러왔다. 할머니의 외로움과 힘들어하는 이 삶을 누가 보상하고 치유해 줄 것인가? 농촌파괴, 생명파괴의 첫 번째 실상은 이 점에서 인간 존엄성의 붕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인간은 분명 '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 나가고 기독교적으로 하느님 형상을 이루어 간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누구나 노동을 통해 자기실현, 자기완성을 이루고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할머니의 뼈에 사무치도록 외롭고 힘 버거운 일을 자기실현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70이 가까운 나이에 시골에 홀로 남아 자연을 고갈시켜가며 흙일을 해야 하는 한국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말하지 않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하기 어렵다.

최근 한국 신문들은 마늘농사를 짓고 있는 한국 농부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자신들의 분신과도 같은 자연생산물인 마늘을 갈아엎고 불태워버린 사건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중국 및 대만에 이동통신 전화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중국산 마늘을 대거 수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값싼 중국 마늘이 들어올 때 한국 농부들이 생산한 마늘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농부들이 경작해온 농산물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 눈물을 머금고 버려지고 묻혀진 일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농촌교회에 부임한 전도사, 목사들 중에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 채소 등을 보며, 자신들의 교우들의 삶을 위하여 그것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정책 부재로, 수입농산물

의 과다 유입 등으로 그렇게 자란 농산물들이 농민들,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그 축복의 기도가 저주가 되었음을 가슴아파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전 재산을 쏟아 부어 농사를 짓건만 그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더더욱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생명의 농산물을 갈아엎어 버리곤 했던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맑스는 노동으로부터의 소외이자,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라고 불렀다. 물론 맑스적 의미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물 자체가 자신들의 분신인 상황에서 그것이 농부들에게 도리어 화가 되어 돌아올 때 그들은 엄청난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노란 바로 소외의 표현이다. 성서적으로 말하자면 땅에서 가시덩굴과 엉킴귀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아무리 공들어 땀 흘려 땅을 경작해 보지만 그 땅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한 늙은 할머니의 삶이 보여주듯이 인간의 존엄성, 노동의 신성성을 앗아감은 물론 농산물 자체를 무가치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명 있는 것을, 생명 없는 것, 오로지 돈 되는 것과 바꾸어 버리며 살아간다. 이는 인간이 처음에는 물질로 물질을 바꾸다가 나중에는 생명으로 물질을 바꾸고 만다는 욕기의 사탄이 보는 인간이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날 푸르르라는 하나님의 창조사건이 있은 후 모든 식물의 존재는 이 땅을 생명공간으로 유지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첫 번째 공창자(共創者)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의 종자시장의 70% 이상이 국외 다국적 기업들의 수중에 들어간 사실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종자주권의 상실은 국내 농민들을 다국적 기업에게 종속되게 만들고, 의존도의 확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더욱 이들 종자기업들은 종자의 수명을 당해년도로만 제한시키는 터미네이터(Terminator) 기술이나 자사(自社)의 특수농약

만을 사용하여 싹을 틔우는 트레이터(Traitor) 기술을 사용하여 농민들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자연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학자들은 이들의 기술을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미 이러한 피해가 세계 각처의 농업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세계 바닐라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마다가스카르 섬은 경작을 위해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섬에서 바닐라의 유전자를 추출한 다국적 기업(생명공학)들의 조직배양 기술로 인해 종자, 식물체, 열매, 씨 뿌리기 재배, 수확 등의 자연과정이 삭제될 운명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 및 땅으로부터 생명체가 뿌리 뽑혀지게 될 때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 역시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으로부터 삭제되고 말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이 조만간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할 때 비료를 많이 사용하여 땅이 산성화되었다든지, 농약 과다 사용으로 먹을 채소가 없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땅으로부터 생명체가 뽑혀지고 사람들이 땅으로부터 토해지는 지경에 이르면 한국고유의 농촌문화, 풍속, 세계관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한 충격, 치루어야 할 희생의 댓가는 너무도 클 것이다.

2. 생명신학의 문화전략으로서의 선교-환경선교와 농촌선교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중심적 사유에 너무도 익숙해져 왔다. 구원의 방주라는 메타포로 이해되고 있는 현재의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위에 군림하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신앙의 유무로 인간을 편가르고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본다. 때로는, 본래 하나였던 농촌의 지역공동체를 교회가 둘로 나누는 역할을 자초하였다는 비판하는 소리도 들린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속론적 특권이 세상(마을)을 섬기는데 있지

않았고 그것으로부터, 타인들로부터 구별되는데 있었기에 믿는 이들 간의 협력, 믿는 이들간의 코이노니아는 생겼을지언정 마을 공동체와는 결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다. 품앗이도 교인들끼리만 하였고 음식 나누는 일도 교인들끼리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회중심적 신앙형태는 결국 개교회 중심주의를 낳았고 자기교회, 자기교파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편협성을 복음의 내용으로 삼았으며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육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인간에게 해방의 메시지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라는 표제 하에 성령론적 교회론의 입장이 새롭게 강조되어지고 있다. 교회란 불고 싶은 대로 부시는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가시적 교회의 사역보다 훨씬 넓고 크며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성령의 사역은 선교와 봉사를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약자를 희생의 댓가로 하여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경쟁사회체제 하에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은 그들을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이런 식의 세계화를 악마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정치, 문화 그리고 오늘의 농촌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운동을 자신의 역할로 이해하고 계신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생명과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고후 3:17). 시편 36편에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샘으로 불리워지고 있고 성령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강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창 9장 이하). 그렇기에 이제 성령강림의 신학,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는 신학으로써의 생명신학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굽주리고 병든 생명,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지구생명체의 파멸위기 속에서 자연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한국 농촌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좀더 보편적으로 말해서 생명의 영으로서 성령이 가져오는 것은 교회라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신학은 한국적 현실에서 환경선교와 농촌 선교라는 문화적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들 양자의 관계는 나뉘어질 수 없는 바, 전자가 후자를 포함할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라면 후자는 전자의 의미를 명료화시키는 구체성을 띠다고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먼저 생명신학의 선교전략은 모든 피조물, 자연생명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 곧 생명의 거룩함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본다. 개인적, 제도적인 폭력, 낭비 등에 의해서 생명이 마음대로 조작되고 지구가 파괴되는 일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신앙의 일이라는 것이다. 말을 바꾸자면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종교적 포장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죄며 악이고, 도시의 삶 자체가 과도한 에너지를 쓰며 살도록 강요하기에 그것만으로 도시의 생활 자체가 농촌의 그것보다 타락되었다는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농촌의 삶 속에 내재된 검소, 검약, 근면의 가치가 비웃어지고 많은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속도감의 마법에 걸린 도시적 삶, 신자유주의의 경제관이 지배하는 그 공간 내에서 인간도, 자연도 자신의 거룩함, 생명성을 지켜 낼 수가 없다. 자연인 우리 몸이 어느덧 금이 되고 돈이 되어버린 기계적 시간에 의해 점점 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여러 차례 강권하셨으나 우리의 눈은 이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쳐다볼 만한 여유도, 느낌의 미학도 빼앗겨 버렸다. 죽어 있는 문자만을 보거나 TV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화려한 상품에 넋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교전략은 우리가 밟고 있는 공간(땅)을 성스럽게 깨닫게 하며, 그 근거와 더불어 친밀해지도록 가르치는데 있다. 예컨대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땅은 어떤 토양인가? 우리가 가끔씩 오르는 산에서 만나게 되는 풀과 곤충들의 이름을 얼마나 딸 수 있는가? 작년에 보이던 생명체가 올해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가 등. 이것 모두는 우리 자신이 밭 딛고 사는 공간, 더더욱 그 안에 경외되어야 할 생명성을 지니고 있는 땅에 대한 지각능력에 관한 물음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깊은 신뢰성을 뜻하는 faith 혹은 believe의 순수 우리말은 '믿음'이다. 그러나 '믿음'이란 본래 밭, 즉 대지, 땅을 지칭하는 것으로 밭에 대한 일상의 경험, 즉 한번도 망가져본 적이 없고 풍부한 생명력으로 인간을 자라게 했던 자연(땅) 경험으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점에서 땅과 더불어 존재하는 농촌의 삶은 구원론적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생명신학의 선교전략을 시편 24편에 기록된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모두 여호와와 의 것이다”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싶다.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영의 단편들이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영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인간생명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 하나님 영의 단편적인 피조물들의 생명을 거룩하게 보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망 속으로 통합되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땅이 인간에게 의존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영어 holiness와 전체성을 말하는 wholeness 그리고 구원을 뜻하는 salvation, 건강을 지칭하는 healthy, 이 모든 단어가 결국 같은 어근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예사롭지 않는 신학적 통찰을 부여한다.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며 거룩해질 때 구원이 발생하고 그것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신학적 발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주인없는 재산처럼 다루어 왔다. 하나님의 것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다, 하늘, 그리고 최근에는 유전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구획하여 사적 재산으로 만들기 위한 쟁탈전이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

서 그들은 일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그들로 인해 인간도 자연도 쉴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을 상실하고 전체를 망각한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것을 보고 즐기며 명상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놓으려는 총체적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은 결국 죽음의 본능을 살고 있다는 표증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자기 소리만을 너무도 크게 내고 살아왔다. 정작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적 고요, 기다림을 잊은 채 말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 일만을 하고 산다. 자연을 조작하려들지 않으며 자연으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때가 되면 비가 오고, 추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속도감, 빠른 것이 미덕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경쟁적인 도시문화의 와중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잊은 지도 오래되었다. 그럴수록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체를 조망하는 일과 함께 생명신학의 문화적 전략이 되어야 한다.

3. 대안적 공동체를 위한 농촌선교-질뚝거리는 야곱의 메타포(Metaphor)

농촌선교란 농촌만을 대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전도가 아니다. 경쟁과 속도가 미덕인 이 땅에 여전히 하늘과 자연에 대해 귀속감을 갖고 있으며 느낌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농촌의 생명력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각성시켜 경제논리에 희생된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도시인들의 삶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우리시대의 문화전략,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불고 싶은대로 부는 성령에 대면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노력인 것이다. 농촌과 자연과 여성을 희생의 댓가로 삼아 발전해온 오늘의 자본주의적 도시문화를 비판하되 그를 올바르게 치유하고자 하는 바램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농부들의, 농촌

사람들의 자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른 농사를 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말했던 한 농사꾼의 고백처럼, 자신을 피해자, 낙오자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도시인들의 거짓되고 허황된 삶을 부끄럽게 만들만한 땅(농사)에 대한 자의식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최근 강원도 깊은 오지에서 80년 간을 살아오면서 그곳에서 다섯 자매의 교육을 훌륭히 시키고-물론 고등학교까지만-도시로 나가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향, 보금자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기당당한 농사꾼 할아버지를 만나 본 적이 있다. 태어난 그곳에서 땅을 일구고 소를 키우며 80여 년 간 살아온 흔적은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었으며 도시인들에 대한 부러움이나 비굴한 열등감이 아니라 당당함과 의연함이었다. 그분은 농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우리와 같은 허약한 지식인들을 한 수 가르쳐 줄 만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고 아름다웠다. 비록 부농(富農)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삶은 그 자체로 교훈적이었고 성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 우리 시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형태와는 다른 대안적 공동체를 염원하며 바라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돈에 대한 신뢰에 깊이 젖어 있음으로써 하나님, 자연, 인간으로부터 소외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참된 위로와 소망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 도시인들이 교회와 사찰에 깊이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이런 소외감을 극복해 보려는 것이지만 도심의 교회와 사찰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믿음이 율법화 되어지고, 삶, 생활을 잃어버린 도시인들은 대안적 가치를 그리워하며 참된 공동체를 바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생명신학의 문화전략으로서의 농촌선교는 대안공동체 창출을 목적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 시대의 대안적 가치를 창출했던 분이였다. 당시의 성직자들이 인습화된 종교적 율법에 의지하여 경제적, 문화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예수는 그들의 길이 바로 넓은 길

임을 지적하고 인습화된 종교적 삶의 양식에 도전하셨다.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던 그 길을 향해 비판하고 그 방향을 돌리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안다. 예수는 결국 그러한 인습적 가치에 매몰된 사람들의 몰이해 및 그들의 기득권 수호의 차원에서 희생되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 영을 재활성시키려고 했던 예수의 죽음을 보며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속도숭배의 현대 문명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헤아려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며 약자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강자 스스로 구원을 보증하는 길이기에는 우리는 농촌선교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필자는 한국교회가 성령의 활동을 위해 ‘절뚝거리는 야곱’이라는 메타포를 선교 및 문화전략으로 삼도록 제안하고 싶다. 필자에게 ‘절뚝거리는 야곱’은 적어도 오늘날 농촌의 영성의 일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창조적 항복을 통하여 자신과 주변 모두를 구원시키는 힘을 이 메타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농촌의 약함이 도시를 부끄럽게 하며 도시를 구원하는 힘이 된다고 믿는다.

성서에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곧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다시 말해 도시적 삶의 특성을 지닌 대표적 인물로서 압복강변 이전의 야곱을 지칭하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2등의 운명을 1등으로 바꾸기 위해서 경쟁, 대결, 속임수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였다. 그러나 야곱은 모든 것을 얻었으나 자신의 근본문제, 형 에서와의 갈등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삶의 안정을 누릴 수가 없었다.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안정을 생각하고 살아온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고뇌와 번민은 의미 충분하다. 삶의 안정이란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만 생각되어질 수 없는 부분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압복강변에서 홀로 앉아 고독하게 기도하며 고민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그와 씨름하다가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 이로써

야곱은 예전처럼 빠르게, 경쟁적으로 살 수 없었고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으며 비로소 멈추어 설 줄 아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성서는 압복강변 이후의 야곱의 실존에게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였고 그에게 구원이 발생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점에서 유대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레비나스는 “하나님의 타자성은 연약한 이웃의 타자성과 다를 게 없으며 그 이웃의 타자성은 나에게 명제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구원시키는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절뚝거리는 야곱, 더 이상 빠르게만 달려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성서적 메타포는 대안공동체를 염원하는 한국인들에게 줄 수 있는 선교적 비전이 된다. 이러한 전략만이 생명의 희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문화창조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늘의 농촌은 경쟁과 속도가 미덕인 도시의 눈으로 볼 때에는 피폐한 곳, 낙후된 곳이지만 성서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압복강변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바로 묵묵히 그 땅을 지켜온 농부들이다. 일에 지쳐 일그러진 얼굴 모습을 하고, 손마디가 굵디굵어진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이다. 문명의 혜택이란 것을 충분하게 받아보지 못했으며, 때론 빗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자신의 농산물을 기계로 뭉게 버릴 만큼 답답한 심정을 가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잘못 살아온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자연을 망가뜨려온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교회가 이런 메타포를 부여잡고 농촌을 이해하고 도시문화, 도시적 신앙양태를 창조적으로 비판해 나갈 때 도·농모두가 염원하는 대안공동체의 모습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촌선교는 도시선교이며 도시선교는 문명비판적 특성을 떨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다. 여성적인 것이 남성을 구원하듯이 결국 농촌이 도시를 구원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확신이다.